

5. 통일신라 · 발해의 회화

1. 통일신라와 발해의 회화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시다.

1. 통일신라시대의 회화

기록;

△솔거, 황룡사의 벽화, 분황사 관음보살상, 진주 단속사 유마거사상 그렸다고 함. 『삼국사기』 권48, “솔거는 신라사람이다. 출신이 한미하므로 족계는 기록하지 않는다. 나면서 그림을 잘 그렸고 황룡사 벽에 노승을 그렸는데 등치나 꺾질, 가지 구부러진 모습이 사실적이어서 새들이 와서 떨어졌다. 단청을 보수하니 다시는 새가 날아들지 않았다.”

사실적이고 氣韻生動하는 그림이었고, 청록산수였을 가능성.

△靖和 · 弘繼; 승려화가; 경명왕(917-923) 때 흥륜사 벽에 <보현보살상> 그림.

△金忠義 장군, 唐에 건너가 활약. 장언원의 『역대명화기』에 기록, “그림이 정묘하나 격은 그다지 높지 않다.”

△北宋 郭若虛, 『圖畫見聞誌』; 唐의 貞元연간(785-804) “신라인들이 周昉의 그림 수집권을 후한 값으로 사감.”

<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>(신라 백지 목서 화엄경 변상도) 754-755년

안쪽에는 칠처구회도(七處九會圖), 바깥 쪽에는 역사상과 보상화.

2. 발해의 회화

△ 大簡之라는 화가가 松石과 小景을 잘 그렸다는 기록

韓致, 『海東繹史』 권67, 「畫史繪要」의 ‘大簡之 渤海人 畫工松石小景.’

△ 정효공주묘

【참고자료】

문명대, 『한국불교미술사』, 한인, 1997

안휘준, 『한국회화사』, 일지사, 1980

안휘준, 『한국회화사연구』, 시공사, 2000

안휘준, 『한국미술사연구』, 사회평론, 2012